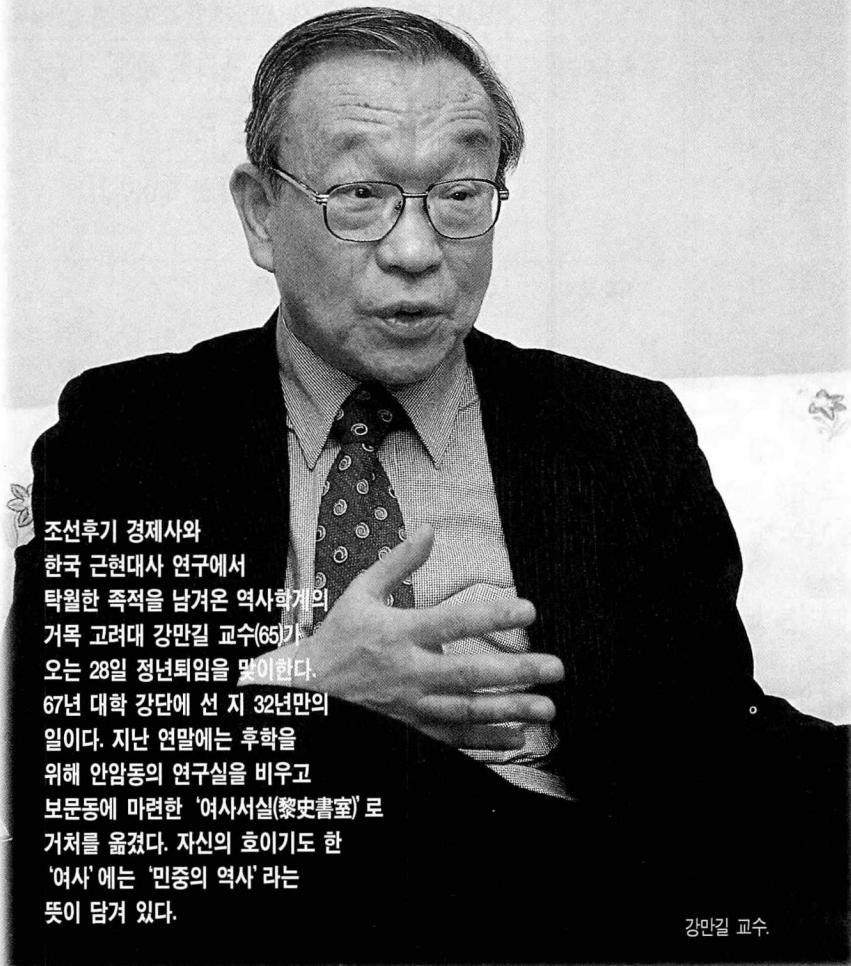


‘통일’을 향한 한 역사학자의 도정

《20세기 우리 역사》·《회상의 열차를 타고》 펴낸 강만길 교수



조선 후기 경제사와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서 탁월한 족적을 남겨온 역사학계의 거목 고려대 강만길 교수(65)가 오는 28일 정년퇴임을 맞이한다. 67년 대학 강단에 선 지 32년만의 일이다. 지난 연말에는 후학을 위해 안암동의 연구실을 비우고 보문동에 마련한 ‘여사서실(黎史書室)’로 거처를 옮겼다. 자신의 호이기도 한 ‘여사’에는 ‘민중의 역사’라는 뜻이 담겨 있다.

강만길 교수

정년퇴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시원섭섭하다”는 짙막한 말로 대신한다. 때가 됐으니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신진대사가 이뤄져야 사회가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라고 덧붙인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때맞춰 지난 달에 《20세기 우리 역사》(창작과비평사)·《회상의 열차를 타고》(한길사)를 잇따라 펴냈다. ‘역사강의’와 ‘역사기행’ 형식으로 역사학자로서의 역정을 갈무리한 것이다.

민족해방운동과 통일운동의 탐구

《20세기 우리 역사》는 지난 97년 1년 동안 유니텔의 ‘가상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으로, 개항과 한반도의 일제강점기부터 김대중 정권의 출범까지 20세기의 한국사에 대한 강교수의 사관과 역사적 전망이 집약돼 있다. 특히 일제에 강점당한 20세기 전반기는 민족해방운동에, 남북이 분단된 20세기 후반기에는 민족통일운동

에 초점을 맞췄다.

“역사책에는 이미 실증되고 논증된 것만 쓰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강의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평이나 의미, 전망도 담을 수 있지요. 이번 역사강의가 동시대의 역사를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동시대의 역사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편 ‘고려인 강제이주 그 통한의 길을 가다’를 부제로 한 《회상의 열차를 타고》는 97년 9월 10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회상의 열차’에 올라 역사학자로서 보고 느낀 바를 기록한 글이다. ‘회상의 열차’는 시베리아에 살던 우리 동포들이 1937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한 길을 되짚어 가는 기차의 이름이었다. 현지취재를 바탕으로 구 소련지역 동포사회의 역사적 내력과 현실을 복원했다.

“시베리아 별판의 민족운동과 중앙아시아

의 강제이주 과정의 역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역사가 이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첫단계로서 여행기 형식으로라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앞으로 통일이 이뤄지면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모국과의 관계도 새로 정립돼야 해요.”

역사학자로서 강교수의 역정은 ‘조선후기에서 근현대로’의 학문적 선택, ‘상아탑에서 현실역사로’의 실존적 결단과정이었다. 높은 교육열 때문에 다섯살 때부터 독점장(獨接長)에게 천자문을 배웠고 중학교 때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 역사를 접했다. 당시 진단학회의 교과서였던 《국사교본》을 제쳐놓고 자기식의 국사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강의에 매혹된 것이 역사학자로서의 길을 예비했는지도 모른다.

전쟁으로 부산에 피난 와 있던 고려대 사학과에 진학해 고대의 노예제도를 연구하리라 마음먹고 열중하기도 했다. 졸업논문으로는 이조시대의 상인을 쓰고 장이(匠人)문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모교의 전임교수가 된 이후 조선후기에 자본주의로의 독자적인 기반이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논구한 박사학위 논문 《조선 후기 상업자본의 발달》로 사회경제사학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분단주의적 역사인식의 심화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은 그의 학문적 역정을 전환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 결국 유신을 위한 명석 깔기였다는 엄청난 역사적 배신 앞에서 현실문제를 말하지 않는 역사학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고민으로 이어졌다. 이 역사적 배신을 눈감고 있는 것은 분단주의적 역사인식 때문이라는 해답이 나왔다.

“분단시대라는 역사인식은 우리 시대가 분단시대임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분단체제의 반역사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반민족사적 분단시대임을 철저히 인식시키는 것이 이 시대 우리 역사학의 최대과제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 현실에 대해 할 말이 많아졌다. ‘주(註)’에서 해방된 글인 ‘잡문’을 쓰

는 일이 잦아졌고 출판사의 요청으로 이를 모아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을 펴냈다. 이 책의 반응은 의외로 컸다. 70년대 후반기와 80년대에 걸쳐 대학 신입생의 필독서였고, 민주화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감명 깊게 읽었다는 인사를 자주 받았다.

“역사학자가 연구실 속에서만 갇혀 있고 대중의 역사인식이 높지 않으면 역사는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역사학자가 대중을 향해 역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때 대중들이 잘못된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학자의 의무죠.”

강교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고초를 겪기도 했다. 광주 5·18 항쟁이 터지자 경찰서 보호실에서 한 달을 보낸 후 해직돼 4년 동안 실직자 신세가 됐다. 83년 겨울에도 느닷없이 불합격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됐다. 6개월 전에 강의한 내용이 빌미가 됐던 것이다. 84년 복직된 후부터 시대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지시대의 공산주의 운동사, 좌우합작운동, 남북협상의 역사성을 강조했다.

“어느 시대나 양심적인 지식인은 권력과

◆ 강만길 교수가 펴낸 책들

·《조선 후기 상업자본의 발달》(고려대출판부, 1973) 조선 후기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향한 자생적인 동력이 존재했음을 밝힌 사회경제사의 저작. 조선후기의 경강상인·개성상인·시전상인의 활동상과 도고상업의 발전과정을 추적해 이 시기의 상업발달 현상은 전통사회 태내에서의 일시적인 상업진흥이 아니라 전통사회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근대사회의 성립을 위한 전제조건을 만드는 역할을 다했음을 실증했다.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창작과비평사, 1978) ‘분단시대 역사론’을 최초로 입론한 책. 오늘날의 국사학이 제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시론을 세워나가야 하며 거기에 국사학의 현재성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주가 불지 않는 논문’의 형식에 담았다.

·《조선시대 상공업사 연구》(한길사, 1984)

·《한국근대사》·《한국현대사》(창작과비평사, 1984)

급변하는 출판 환경에 대응하는 창조적인 출판 전문인

출판 편집자 재교육 프로그램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는 현재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출판 편집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제6회 예영 출판 아카데미를 개최하면서, 지난 1997년의 경우와 같이 한국 기독교출판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판 아카데미는 급변하는 출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인 편집자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강의일정

4/6(화)	개회예배/1999년 국내외 출판의 동향과 전망/김승태
4/8(목)	현대 편집디자인의 새로운 동향과 편집자의 대응/김진우
4/13(화)	기독교 출판의 정체성을 살린 출판 기획/오생현 책의 생명을 길게 하는 출판 기획법/황을호 이제는 출판도 시스템이다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출판 시스템의 방향)/김승태
4/20(화)	번역 출판 편집의 난제와 해법/원영희
4/22(목)	해외 저작권 문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외 저작권 문제, 이제는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김덕천
4/27(화)	멀티미디어 사회와 출판산업의 포지셔닝/김진우
4/29(목)	전자출판의 새로운 동향/김진우 21세기를 향한 문서선교의 새로운 비전-서재석/수로예배

▶ 강사진

- 김진우 (고신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 김덕천 (한국크리스찬문서선교재단 총무)
- 김승태 (출판인, 예영커뮤니케이션 · CUP 대표)
- 서재석 (복음과 상황 편집부장)
- 오생현 (출판인, 베다니출판사 대표)
- 원영희 (전 가이드포스트 편집장)

▶ 교육 대상 ; 출판 편집 실무 경력 1년 이상~3년 미만의 편집자

각 교회나 선교단체의 문서 담당자

▶ 수강료 : 150,000원(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 회원사)

200,000원(비회원사 또는 개인)

▶ 기간 : 1999. 4. 6 ~ 4. 29. 매주 화 · 목요일 저녁 6:00-9:00

▶ 장소 :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회의실

▶ 주최 : 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 · 예영커뮤니케이션

▶ 주관 : 예영커뮤니케이션

▶ 문의처 : 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T. 3474-0820) / 예영커뮤니케이션(T. 851-2247)

▶ 접수처 : 예영커뮤니케이션(T. 851-2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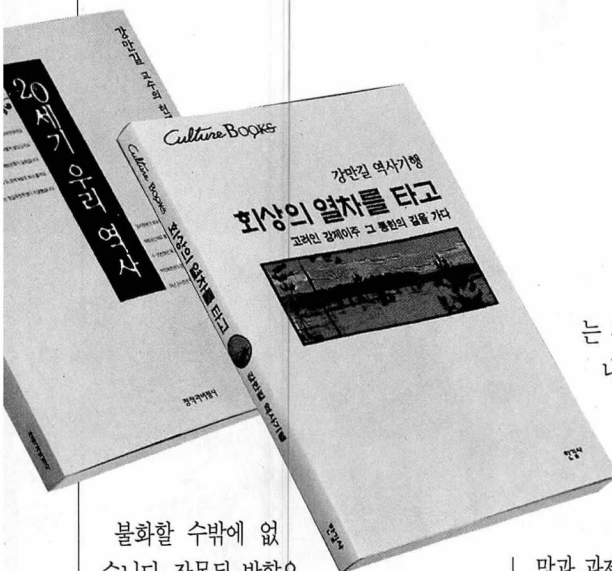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8-21-0416-622(김승태)

* 본 시안은 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와의 협의를 위한 초안이며, 강사 섭외과정에서 강의 제목이나 강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 · CUP 152-059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19-1

출판부 T. 851-2247 출판유통사업부 T. 830-8566 F. 830-8567 도모사업부 T. 851-2248

CUP는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 위탁 경영하는 출판사입니다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체제에 대해 잘못했다고 발언하지 않을 수 없지요. 지식인이 현실에 안주하고 침묵하면 현실은 계속 잘못된 길을 갈 테니까요. 결국 지식인의 존재근거는 비판성에 있어요.”

일제말기에 태어나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신 역동적인 역사의 실험장을 거쳐 왔다. 즉 식민통치의 경험, 8·15해방과 좌우의 갈등, 6·25전쟁, 4·19민중혁명, 5·16군사쿠데타, 5·18광주항쟁, 87년 6월항쟁 등 옛 사람들은 일생에 한반도 겪기 어려운 역사였다. 이러한 격동의 과정에서 강교수는 역사의 진행방향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얻었다.

“역사는 모든 인간들이 정치적 속박에서 해방되는 길로, 경제적 빈곤과 불균등에서 벗어나는 길로,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해가

는 길로, 사상적 부자유와 탄압을 이겨내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방향에 반하는 모든 노선과 행동은 반드시 극복돼왔습니다.”

21세기 역사의 흐름에 대한 전망과 과제도 빼놓지 않는다. 세계사적으로는 평화주의가 정착하고 생태주의적 관점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한반도에서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대등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본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학자로서 한 매듭을 지었지만 앞으로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일제시대 강제연행사를 실증적 연구로 밝히는 것, 그리고 현재 남쪽만의 역사만 서술돼 있는 현대사에서 북한의 역사학도 동등하게 다루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 도덕적 엄격성과 과학적 엄밀성으로 역사라는 견고한 성체를 쌓아온 강교수의 학문세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다고 기대해볼 만하다.

— 박천홍 기자



의 화전민사회는 민족운동기지의 하나이기도 했다. 도시빈민으로서의 토막민과 실업자는 그 존재 자체가 식민지 수탈정책의 증거였으며 토목공사장 막일꾼도 노동운동과 일부 연결되고 있었다. 식민지 수탈정책이 만들어놓은 이들 광범위한 의식 있는 빈민의 존재를 통해 식민지시대의 성격을 규정했다.

· (통일운동시대의 역사인식)(청사, 1990)

·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화평사, 1991)

· (고쳐 쓴 한국 근대사) · (고쳐 쓴 한국 현대사)(창작과 비평사, 1994) 1970년대까지의 연구업적과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씌어진 《한국근대사》 · 《한국현대사》를 90년대까지 축적된 남북한 역사학계의 연구업적을 반영해 전면적으로 수정했다. 근대사에서는 북한학계의 성과를 수용해 문호개방 전후의 사회경제사를 손질하고, 현대사에서는 일제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을 대폭 강화했다.

· (역사를 위하여)(한길사, 1996)

· (한국민족운동사론)(한길사, 1985)

·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창작과비평사, 1987) 식민지시대의 사회성격을 밝히기 위해 식민지시대 민중생활의 실상을 규명했다. 이 책에 따르면, 식민지시대의 농촌빈민은 치열한 농민운동의 모체가 되었으며 그 변형으로서